



익산 서동축제가 제13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헤리티지관광 활성화 부문 축제리더상과 대표프로그램 부문 금상 수상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서동요 전설'

익산 서동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2관왕 쾌거

익산 서동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제13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헤리티지관광 활성화 부문 축제리더상과 대표프로그램 부문 금상 수상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날(18일) 익산에서 개최된 2019년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IFEA World) 연차총회와 제13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대회에서 이 같이 수상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역사유적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헤리티지관광 활성화 부문 올해의 축제리더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동축제 주제인 서동요를 모티브로 서동과 선화마을을 오가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서동요 전설'은 대표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서동축제가 피너클 어

워드 수상으로 국내 대표축제로 갈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며 "역사인물축제 운영의 우수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전국 지자체 및 축제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해 한국의 축제정책 방향 및 국내외 축제의 성공전략을 공유하고 세계축제 트렌드와 핫이슈를 주제로 워크숍과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어진 '축제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의 한국대회에는 30여 개의 국내 지자체 대표축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익산=정인천기자

김제지평선축제, 대한민국 축제도시 수상... 글로벌 축제로 '우뚛'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최근 익산 웨스턴 라이프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Pinnacle Award Korea)'에서 '대한민국 축제도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축제의 오스카상, 지자체 축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에서 주최하는 축제분야 국내 최고의 상으로 매년 경쟁력있는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세계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및 대한민국 대표 5대축제 선정되었다. 더불어 전용축제장 구축 및 축제관계자 전문 자격증 교육 실시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축제를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한민국 축제도시 수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내 축제분야 최고의 상인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축제도시를



김제지평선축제가 제13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대한민국 축제도시'를 수상했다.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지평선축제는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수용 공간 및 먹거리를 확충하여 글로벌 육성축제 품격에 맞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주행사장이인 벽골제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비평문학의 거장을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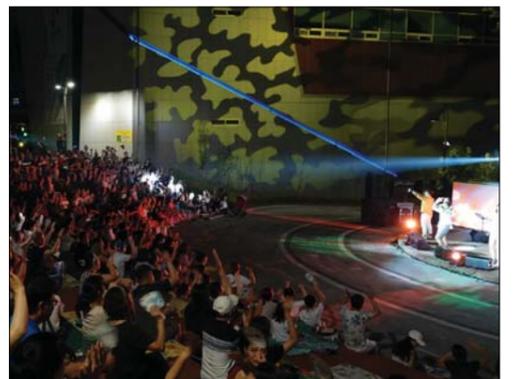
무주군,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개최

무주군은 2019년 제1회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무주 출신 출신 김환태 선생의 순수비평정신을 알리고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전국 중·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작품접수는 8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김환태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품을 읽고 김환태 선생 및 그의 작품에 대한 감상(시, 소설, 수필, 감상문 등 형식은 자유)을 제출하면 된다. 방문과 우편(5551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김환태문학관사무실) 전자우편(hyang1511@korea.kr) 접수가 가능하며 타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있는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또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응모 작품을 다른 대회에 중복 응모할 수 없다. 수상자 모두에게는 무주군수상이 수여되며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백만 원, 금상 1명에게는 1백만 원 상당의 부상, 은상 1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부상, 동상 1명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부상, 가작 3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입상작 발표는 10월 28일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하게 되며 시상식은 11월 9일 제1회 출신 김환태 문학제 김환태평문문학상 시상 시 할 예정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비평문학이라는 장르, 무주출신으로서 비평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김환태 선생과 그의 작품을 청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김환태의 고장 무주와 함께 김환태문학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신 김환태 선생은 무주출신이자 한국 비평문학의 선구자로 무주군은 그의 문학을 기리고, 무주문화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무주읍 단산리 일원에 김환태문학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문학관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놀이전시관, 그리고 휴게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환태 비평 선집 등 다수의 저서와 유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익산예술의전당서 여름밤 무료 음악회 '산책음악' 개최

익산예술의전당이 8월의 한여름 밤 산책길에서 만나는 야외 공연을 마련한다. 예술의전당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야외공연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여름밤 음악회 '산책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공연은 익산시가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야외 기획공연으로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기 좋은 공연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예매도 필요 없다.



첫째 날인 8월 1일에는 각종 페스티벌과 공연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뮤즈그레인'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인다. 지난 2006년 '대학가요제'에서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실험적인 음악과 매력적인 보컬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던 주인공이다. 둘째 날인 2일에는 세계밴드대회(Emergenza Festival Korea)에서 우승하고 영화와 드라마 OST, 광고음악, 콘서트 활동을 해온 목직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헤이먼'이 무대를 빛낸다. 또 '눈발', '개성', '힘을 내시다' 등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원조 걸크리쉬 매력을 전하는 익산 시민이 된 가수 리

아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슈퍼스타 K4 출연 후 싱어송라이터와 라디오DJ, 각종 OST에 참여한 감성 보컬리스트 '홍대광'이 출연해 더위에 지친 관객들에게 시원한 무대를 선사한다. 그는 예능프로그램까지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고 기본 좋은 노랫말과 밝은 멜로디로 청자들의 위로와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이번 공연 '산책음악'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달빛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며 열대야를 수놓을 청량한 음악에 빠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양원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